

2026년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16:00 – 17:00
- 장소 : 강북구가족센터 4층 다목적강당(대면 회의 진행)
- 참석자 : 총 18명

운영위원	배석
7명	11명

■ 세부내용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	접수 및 출석확인	과반수 참석
16:05-16:30	2026년 2분기 보고사항 및 예산보고	
16:30-17:00	2026년 중점 사업 발표 및 사업관련 논의	

■ 회의내용

1. 보고 사항

- 1) 2026년 1분기 운영위원회 결과보고
- 2) 2026년 2분기 보고사항
 - 2026년 1분기 센터 주요 사업 실적
 - 홍보 및 네트워크 실적
 - 2026년 2분기 센터 주요 사업 진행
 - 2026년 3분기 센터 주요 사업 추진계획
 - 2026년 아이돌봄지원사업
 - 2026년 2분기 센터 운영 보고
- 3) 2026년 예산 보고
 - 2026년 2분기 확정내시 변경 내역
 - 2026년 2분기 수입 및 지출
 - 2026년 2차 추가경정 및 예산전용 보고

2. 논의사항

1) 2026년도 가족센터 사업영역별 중점사업에 대한 논의

- 2026년 중점사업 개요
- 2026년 중점사업 계획 보고
- 중점사업에 대한 주요 논의 및 피드백

3. 주요 의견

1) 2026년 2분기 보고 내용에 대한 주요 의견

구분		답변
보고 내용	1	- 참여자 모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자 모집을 위해 다양한 홍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됨. 이 중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음. : SNS(카카오톡채널, 인스타그램)와 강북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경우 페이스북, 다누리, 현수막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매체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음.
	2	- 퇴사 및 입사가 잦은 편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음. : 일부 직원은 업무의 난이도가 높다고 느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나, 본 센터는 타 복지기관과 달리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주말근무가 많은 근무 환경임. 이에 입사 당시에는 해당 근무 형태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면서 주말근무의 부담을 크게 느껴 퇴사하는 경우가 주요 퇴사 사유로 확인됨.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2026년 중점 사업에 대한 주요 의견

(1) 2026년 중점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 주요 내용
1	생애주기별 사전예방 접근 가족역량강화 서비스 [중·노년기 부부교실]	생애주기 기반 예방형 가족관계 지원사업으로 50~60대 중년부부와 노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관계향상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신혼기 중심의 가족지원에서 중·노년기로 확대하여 강북구 초고령 사회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 관계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참여자 상담·사례관리 연계를 통한 예방형 가족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2	취약·위기가족 사후 맞춤형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 [취약·위기가족 자기돌봄 통합지원]	생애주기별 취약 위기 가족 자기 돌봄 통합프로그램 운영하고자 함. 돌봄 부담, 정서적 고립 등 취약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상담, 사례관리, 자조모임까지 연계하는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 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임.
3	세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1인가구 서비스 [정서취약 1인가구 일상회복 맞춤형 프로그램]	정서적 고립 위험이 있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집단상담, 관계형성 프로그램, 세대통합 활동 및 사후관리를 운영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고립 예방을 지원하고자 함. 2025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강북형 1인가구 지원 모델 구축을 추진할 계획임.
4	다문화가족 입국시기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다문화가족 부부프로그램]	신혼기 및 중장기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거주 주기별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함. HD행복연구소와 공동사업을 운영하여 전문 강사의 진행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의 의사소통 향상 및 관계 내 긍정적인 소통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가족 해체 등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5	다문화가족 입국시기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가족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 통합지원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성장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상자 중심의 연계 및 지속 관리 체계 마련하고자 함.

(2) 2026년 중점 사업 관련 주요 의견

구분		내용
사업 관련	1	발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명과 프로그램 네이밍이 인상적이었음. 특히 대상자 중심의 통합관리(DB) 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이며, 담당자 간 공유가 가능한 대상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사업 연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2	중점사업의 전체적인 계획 안에 기관의 5개년 발전계획과 중점사업의 연계성을 함께 제시하면 기관의 방향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중·노년기 사업은 웰다잉까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으로 보임. 또한 외부 공모사업 및 유관기관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사업의 큰 강점으로 보임.
	3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 대상자를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람.
	4	대상자 관리 DB 구축과 이용자 고유번호를 활용한 장기 추적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강북구만의 특화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중단적 성과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짜임새 있는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또한 1인가구 사업은 '관계'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관계의 질을 중심으로 하여 대상자에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임.
	5	이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으며,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문화여가 프로그램 등)과 충분한 사업예산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율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6	가족센터의 강점인 가족관계 증진 기능을 중심으로 강북형 가족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방향이 잘 이루어져 있음. 이에 각 사업별 '건강한 관계'의 개념과 이에 대한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예방 중심의 가족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취약위기 사업의 경우 사례를 발굴 후 프로그램으로의 개입이 일반적이나, 프로그램으로의 유입을 먼저 시도하는 역방향적 사업 운영 방법이 인상 깊으며, 이러한 사업 흐름의 경우 내외부 연계를 통한 운영 활성화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음. 다문화가족 사업의 경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중심이었으나, 부부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통하여 가족 위기에 대해 사전 예방적인 조기 개입이 가능해진 부분이 인상적임.
	7	운영위원 의견에 감사드리며,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생애주기별 가족지원체계와 강북형 가족지원 모델 구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홍보와 참여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겠음.

■ 회의 진행사진



2026년 6월 24일
강북구가족센터